

“역량 강화와 진로 선택에 연결되는 기회가 되길”

전북중기청, '진로·직업 페스티벌' 열어... 채용 현장 체험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서 '4차산업 진로체험존' 등 운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생 등 구직자 채용 현장을 체험하며 창업·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4차산업 진로체험을 통한 직업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2018 전북 진로·직업 페스티벌'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 전북 진로·직업 페스티벌'은

'2018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와 연계, 진행으로 채용관, 컨설팅관, 진로체험관 등 부스 운영을 통해 구직자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률 제고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이다.

또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도, 군산시, 군산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가 공동주최한다고 전했다.

특히, 채용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1:1 채용 면접의 진행으로 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이미지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창업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사진 촬영 등이 진행된다.

이번 '2018 전북 진로·직업 페스티벌' 진로체험관에서는 미래 유망분야인 4차산업의 다양한 트렌드를 진로, 직업 설정 연결의 기회가 되도록 '4차산업 진로 체험존' 부스 운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생들이 직접 체험하여 진로·직업 정보 습득을 위

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4차산업 진로 체험존'의 주요 테마는 드론관, 3D프린팅관, VR/AR(가상현실)관, 신재생에너지관의 4가지 테마로 구분되며 체험,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생들의 미래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4차산업의 다양한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중소기업 기술체험, 인식개선 등 종합 체험을 통해 취업 동기 부여, 해당 분야의 진로 정보 습득까지 가능하도록 마련

된다. 한편,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채용·구인 정보를 제공 받아 취업역량 강화와 진로 선택에 연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유도 및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최아미 주무관 (063-210-6433)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김용진 기재차관 “경제투톱 ‘경질’ 용어 적합하지 않아”

김용진 기재차관 2차관은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경질된 것과 관련해 “경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경제 투톱’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고용 약화의 책임을 물어 경질당한 것 아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으로 안다”며 “누차 말해왔지만 현재 어려움이 있긴 하나 ‘경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단기(맞춤형) 일자리 확충 대책이 통계 조작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왔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보강에 써왔다”며 “작년과 올해 편성했던 일자리 예산은 그 일환이며,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일자리도 고용 여건이 어려울 때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크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

홍남기 “고용 상황 엄중... 통계 향방 지켜볼 것”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내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청문 요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달 말에 청문회가 다음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휴일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엔 청문회 진행 관련 준비 사항들을 비롯해 세계실로부터 일부 현안 보고를 받았고, 둘째날엔 이날엔 국내 차관보실과 국제 차관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고만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더 지켜보면 좋겠다”며 “통계의 향방이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인(sign)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9월 4만5000명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7월(5000명)과 8월(3000명) 연이어 1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홍 후보자는 또 경제부총리로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 성장 경로를 가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여력을 동원해 잠재 성장을 자체를 끌어올리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잘 고민하겠다”며 “일단 청문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정책 구상도 잘 다듬겠다”고 답했다. 기존에 나온 대책 외에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고민하겠단 여지도 남겼다. /뉴스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업무협의회로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 할 것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9일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점장, 담당자 대상으로 '2018년 하나로마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농협 하나로마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 고창룡 한남대교수의 '유통환경 변화와 점포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계획,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계통구매 확대,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하나로마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 농협의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재료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로마트 매출 신장 뿐 아



전북농협이 지난 9일 전북 관내 하나로마트 점장, 담당자 대상으로 '2018년 하나로마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했다.

니라 지역 농산물과 6차산업, 마을 기업 등의 농업인 생산제품 판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며, “판매

농협 구현,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에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모든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농협은행 전북본부,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3000장·난방용품 기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 김장근 농협은행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노조위원장 등 많은 임직원과 함께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연탄 3천장과 난방용품 등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전북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준비됐다.

또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진행 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연탄을 쌓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담아 전달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12일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쳤다.

“지역의 모든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NH농협은행은 도민과 고객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사회공헌 연감플랜을 수립하여 농촌 일손돕기, 현행행사, 사랑의 빵 나누기, 지역 주민 집 고쳐주기, 임신후기 원료관리 등 매달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